

# 장백산천지

제 191 호

2011년 4월 29일

금요일

## 길이 빛나라, “4.25”여!



1999년 4월 25일, 만여명 파룬궁학원들이 북경국무원래신래방사무실에 상방하러 갔다. 중공 총서기였던 강택민은 몰럼치하게도 이 “4.25”상방은 “중남해를 포위공격한 정치시위”라고 떠들면서 파룬궁을 탄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윗사진은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다. 독자들, 곰곰히 생각해 보라. 중남해의 담벽은 짙은 붉은색인데 늘어선 사람들의 뒤에 있는 담벽은 회색이다. 이 어찌 중남해를 포위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중남해를 포위공격한 정치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대 경찰들이 이렇게 한가로히 서있을수 있겠는가? 파룬궁학원들이 표어도 들지 않고 구호도 부르지 않고 머리를 숙인채 파룬궁책을 읽고 있는데 그래 이것이 포위공격이란 말인가?

파룬궁학원들이 왜 “4.25”상방을 하게 되었

는가? 이 문제에 대해 중공은 거짓말을 했다. 1999년 4월 11일, 하작휴(何祚庥)가 “청소년과 학기술박람”잡지에 파룬궁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문장을 발표했다.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부 천진시파룬궁학원들이 천진교육학원과 유관부문에 가서 실제정황을 반영했다. 4월 23일과 24일에 천진시공안국 경찰들이 파룬궁학원들을 구타하고 45명을 붙잡아 가두었다. 이 소식을 알게된 파룬궁학원들이 4월 25일에 자발적으로 북경국무원 래신래방사무실로 왔다. 사람이 많아서 신방사무실주위의 부우거리와 서안문 대거리까지 모이게 되어 중남해부근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날 국무원 총리 주용기(朱鎔基)가 직접 파룬궁학원을 만나 현장에서 파룬궁대표와 대화하여 폭력으로 사람을 붙잡은 천진사건을 합리하게 해결했다. 저녁에 학원들이 헤어질 때 땅에 파지 한장 없었고 경찰들이 던진 담배꽂초마저 주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4.25’ 상방은 중국력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평화적이며 가장 원만한 상방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10여년동안 중공의 잔혹한 박해속에서 옳바른 믿음으로 정의를 주장하고 진리를 견지해온 파룬궁학원들은 세인들의 생명과 미래를 위해 여전히 이성적이고 평화적으로 반박해와 진상알리기에 진력해왔다.

길이 빛나라, “4.25”이여!

## 세계각지에서 “4.25”상방 12주년을 기념



지난 4월 24일, 홍콩 파룬궁학원들이 집회와 시위행진을 거행하여 “4.25”상방 12주년을 기념했다.



지난 4월 24일, 천여명 파룬궁학원들이 대북 자유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4.25”상방 12주년을 기념했다.



지난 4월 23일, 천여명 파룬궁학원들이 뉴욕 플라싱에서 시위행진을 거행하여 “4.25”상방 12주년을 기념했다.

# 파룬따파는 나에게 두번째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길림성 녑강구 전진가에서 살고있다.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기전에는 담낭염, 지방간, 풍습성관절염, 신경관능증, 치질 등 여러가지 병에 걸려 온종일 병마의 고통속에서 허덕였다. 더욱 무서운 것은 유선암에 걸려 한쪽 유방과 3대 연골을 떼버렸다. 당시 전문가들은 내가 2~3 년 밖에 살수 없다고 말했다.

몇년동안 나는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 다니며 치료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96 년에 장춘제3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갑상선이 계란 노란자위만큼 컸던것이다. 생활이 곤난해 수술할수 없었다.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려 앉는것 같았고 몸은 하루하루 못해졌다. 내가 절망에 빠져 살 용기마저 잃었을때 97 년에 한 젊은이가 나에게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공법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때로부터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었는데 과연 나의 몸에서 기적이 나타났다.

나의 몸은 하루하루 좋아졌고 온갖 질병들은 가뭇없아 사라졌으며 무거운 일도 할수 있게 되었다. 사부님께서 파룬따파를 전수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수 없다. 사부님은 나를 구해주었으며 파룬따파는 나에게 두번째 생명을 주었다.



## 파룬궁은 너무도 신기하다

지난 4 월의 어느날, 산둥성 채양시 단왕진에서 살고 있는 수치덕(隋治德)은(필명) 건축공지에서 일하고 있었다. 갑자기 길이 1 미터인 4 촌 철파이프가 27 층에서 떨어져 내려 그의 몸에 박혔다. 그의 옷은 찢겨졌지만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는 철파이프를 떨어뜨린 로동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약 파룬궁호신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더라면 오늘 죽었을 것입니다. 파룬궁은 너무도 신기합니다. 나는 돌아간 후 파룬궁을 꼭 배우겠습니다.》

# 박해로 사망된 주채화



사진: 주채화



사진: 흑형시범: 매달아 심문

원 내몽고 적봉시총공회 녀공부 부장이며 파룬궁학원인 주채하(周彩霞)는 지난 2003 년 1 월에 중공경찰들에게 랍치되어 적보시 흥산구 구류소에 갇혔다가 그 해 7 월 4 일에 내몽고 보안소 감옥으로 압송되었다. 감옥장 주건화의 지시하에 악경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벌을 세웠는데 앉지도 눕지도 못하게 했다. 7 월 12 일, 밤 10 시경에 주건화는 범인들을 시켜 걸레로 그의 입을 틀어막게 하고 신바닥으로 마구 때린후 룡구대에 매달아 놓았다. 이튿날 아침 4 시에 주건화는 사망되었다. 악경 주건화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덮어감추기 위해 “주채화는 갑자기 급성병에 걸려 사망되었다.”라고 상급에 거짓보고를 했다.



폭로

## 연변박해소식

- 지난 3 월 6 일, 연변파룬궁학원 랑염매(郎艳梅)、리영결(李永洁)은 로동개조 1 년판결을 받고 지금 장춘흑취자로교소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3 월 23 일, 훈춘시파룬궁학원 정정옥(丁正玉)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훈춘시구류소에 압송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3 월 13 일, 훈춘시파룬궁학원 손기영(孙贵英)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지난 3 월 30 일, 연길시파룬궁학원 주희옥(朱喜玉)은 진달래광장에서 아침런공하다가 연길시 국보대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대성세뇌반에 압송되었다. 악경들은 총계로 올라갈때 그의 머리 카락을 잡아끌어 한줄이나 빠졌다. 주희옥은 세뇌반에서 잔혹한 박해에 대해 단식항의를 했으며 진상을 이야기했다.

선약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

